



협회소식

본회,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 위원회' 구성

- 5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서 첫 회의 개최

본회는 양돈자조금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과 공동으로 5월 27일 14시 서울교육문화회관 은하수실에서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

본회는 최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축사육두수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돈육 소비량 감소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및 돈가 전망도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자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개최키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해, 최영렬 부회장 등 축산단체 임원 4명과 축산업자 8명, 학계인사, 소비자, 유통전문가 각 1명씩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위는 자조활동자금의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자조금제도가 원활히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게 된다.

"가축 이동증명서 휴대 의무화 필요"

- 본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 농림부에 건의키로

본회는 4월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양돈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환)를 개최하고, 종돈장·인공수정센터 방역관리 대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령(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동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림부가 발표한 돼지콜레라 방역지침 중 발생농가의 이동제한 해제와 관련, '발생농장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완료 40일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약 발생농장이 종돈장일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종돈장은 예외라는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 중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와 관련, 가축이동증명서의 휴대로 확대 적용해 줄 것과 농장의 질병전파를 막기 위해 현행 GGP농장만 종돈업에 신고하는 것을 자돈, 육성돈 위탁농장도 종돈장으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과 관련해 이동식 동력고압분무기 2대 규정은 과도하다며, 1대 이상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제주산 도태모돈 필리핀 수출 '초읽기'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380두분 선적

지난 5월 15일 제주산 도태모돈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양돈축협(조합장 오경욱)은 5월15일 남제주 대정읍·안덕면을 대상으로 도태모돈 20두를 시작으로 6월 6일까지 총 380두를 수거하여 1, 2차로 나눠 수출돈 작업을 거쳐 필리핀으로 선적키로 했다.

1차 선적 물량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선적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쉬는 날을 제외한 일일 20두씩 수거 후 수출돈 작업을 거쳐 1차로 23일과 2차로 6월 6일 각각 선적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본회는 제주양돈축협과 공동으로 4월 16일 모돈 사육두수 감소를 통한 국내 돼지고기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도태 모돈을 필리핀으로 시범 수출키로 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보상금 조기 지급돼야”

- 본회, 농림부에 빠른 시일내 집행해 줄 것 요청

본회는 5월 12일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살처분한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과 모돈 재입식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본회는 “지난 3월~4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축 재입식시 일괄사육농장의 경우 후보돈 중심으로 재입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재입식 자금 지원시 후보돈 입식자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가축 재입식비 지원 항목 중 모돈 구입비를 추가하여 구입비를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본회는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조기지급 등 조속한 집행이 이뤄져 살처분 농가가 하루빨리 경영안정을 되찾아 양돈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요청했다.

본회, 영양사협회와 돈육소비활동 공동 추진

- 수출부위 돼지고기 요리방법 등 공동개발

본회 김건태 회장은 4월 21일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돼지콜레라 인체 무해 계도 및 소비확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건태 회장은 “영양사 및 학생,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계도 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단체 급식시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단체 급식시 국내산 축산물 사용 의무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

편, 단체 급식에 알맞은 안심·등심 등 수출 부위를 이용한 돼지고기 요리방법 등 공동개발을 통한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고급 단백질원으로 비타민 B1 등 다량 함유, 체내 중금속 해독효과 등 돼지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계도 및 홍보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영양사협회와 공동으로 돼지고기 영양 성분 등 조사, 단체 급식용 돼지고기 요리개발 등 공동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돈관련 업체에 돈육 수입중단 재요청

- 일부 지부 수입규탄대회 열 움직임

본회는 4월 23일 대상농장, 진주햄, 롯데상사, 롯데햄롯데우유 등 4개 양돈관련 돈육 수입업체에 대해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재 요청했다.

본회는 3월 24일 돼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돈육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양돈관련 수입업체에 돈육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CJ푸드시스템과 대한제당(주), 농협무역(주), 한국냉장, (주)진주햄 5개 업체로부터는 돈육 수입 중단 및 자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대상농장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지 않음에 따라 23일 수입중단을 재 요청했다.

한편, 본회 일부 시군지부에서는 양돈관련

업체가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이들 업체의 수입을 막기 위한 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부교실지도자 대상 소비홍보 활동 전개

- 돼지고기 수출부위 시식회 및 요리책자 지원

본회 김건태 회장은 4월 22일~23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전국 주부교실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김건태 회장은 이윤자 회장과 참석자들에게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돼지콜레라가 인체에 해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돼지고기 소비를 기피해 양돈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돼지콜레라가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소비의 주 구매층인 주부들에게 적극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위축된 돼지고기의 소비촉진과 돼지콜레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키 위해 국산 돼지고기 수출부위로 만든 축축살 410kg을 지원해 시식회와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요리책자 1,000부를 배부해 행사에 참석한 1천여명의 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 서신 보내

- '돼지콜레라 인체 무해' 적극 홍보에 감사 뜻 전해

본회 김건태 회장은 지난 4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TV를 통해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감사 서신을 보냈다.

본회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등 양돈농가들의 안타까움과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TV 방영 이후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본회는 이번 회동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방영한 KBS, MBC, SBS에도 감사 서신을 보내고, 앞으로도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돼지콜레라가 인체 무해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산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용 의무화 해야”

- 축단협,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급식법 개정 입법 요청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 본회 회장 겸임)가 국산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용 의무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축단협은 지난해 10월 권오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5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운영탁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축단협은 공문에서 “동 법률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국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동 법률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축단협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5개 회원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동 법률이 빠른 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네티즌 95% “돼지콜레라 명칭 변경해야”

- “돼지열병” 37.1%, ‘돈열’ 34.9% 순으로 응답

양돈네티즌의 94.6%인 724명은 현행 사용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명칭이 변경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4월23일부터 5월16일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돼지콜레라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 766명의 응답자 가운데 94.6%인 724명이 변경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돼지열병’이 37.1%인 284명이 응답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열’ 34.9%인 267명, ‘CSF(Classical Swine Fever)’ 11.7%인 90명, ‘돈열병’ 10.6%인 81명, ‘기타’ 0.3%인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4%인 41명은 돼지콜레라 명칭을 현행대로 사용하자고 응답했다.

양돈농가 “돼지 사육두수 감축해야 한다”

- 본회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74.1% 응답

양돈농가 74.1%가 국내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4월22일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5명의 응답자 가운데 74.1%인 530명이 이같이 응답했다.

이중 ‘5% 정도 강제감축’이 37.2%(266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뒤를 이어 ‘5% 정도 자율감축’ 28.1%(201명), ‘2~4% 정도 강제감축’ 5%(36명), ‘2~4% 정도 자율감축’ 3.8%(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5.9%(185명)가 ‘감축할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돼지사진 콘테스트 행사 개최

- 5월15일~6월15일까지 - 대상에 100만원 상금

본회는 월간양돈 창간 24주년(2003년7월호)을 맞아 푸집한 상금이 걸린 돼지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양돈산업의 이미지 부각’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며, 돼지를 사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를 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돼지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 등 돼지가 포함되어 있는 예쁜 사진을 직접 촬영·인화하여 6월15일까지 본회로 보내면 된다.

출품작 중 13점을 뽑아 대상 1명에는 100만원, 금상 1명 50만원, 은상 1명 30만원, 동상 10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회는 이번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돼지와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2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80만원

지난 5월 12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 제 153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80만3,418원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4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5두 등 총 142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87만4,231원(104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6만6,129원(31두)으로 나타났다.

이날 우정종돈(대표 심봉구) 듀록 수컷(선발지수 275점) 슈퍼돈이 전북 김제시 망경을 장산리 소재 김기훈(호남 AI센터)씨에게 최고가인 4백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82만원

지난 4월 22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 제 152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82만370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87만1,125원(80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7

만5,357원(28두)으로 나타났다.

한편, 풍원종축 버크셔 수컷(선발지수 252 점)과 경기양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64점)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온혜경씨, 경남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김규한씨에게 각각 이날 최고가인 2백10만원에 낙찰됐다.

안기홍 전무 사임

본회 안기홍 전무가 지난 5월 21일부로 사 직서를 제출했다.

안기홍 전무는 지난 2001년 3월 협회 상무 로 영입된 후 전무로 재임명 됐으며 2여년 동안 전무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동 성 상무가 전무대행을 맡게 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해남지부, 하절기 질병세미나 개최

해남지부(지부장 박주남)지난 4월 19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에서 4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동 바이오사업부 서훈원 부장과 중앙동물병원 조상욱 원장을 모시고 하절기 환경관리와 양돈질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지부, 질병예방 세미나 개최

충남 천안지부(지부장 김인식)는 5월 22일 협회사무실에서 5월 월례회의겸 질병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미생물연구소 김민봉 수의사를 초빙 하여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농가의 소 독방법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에 대해 질병세 미나를 함께 개최했다. 또 이날 세미나 후 양 돈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군위지부, 생산성 향상 양돈세미나 개최

군위지부(지부장 정장규)는 지난 2일 축협 회의실에서 제3차 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군위지부 회원 2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최영렬 부회장의 2002년 도 해성농장 생산비 분석자료를 통한 양돈 경영 사례발표가 있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지부 회원들은 양 돈산업 동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홍천지회장에 허순씨 선출



허순 홍천지회장

강원 홍천지회는 지난 3월 9일 파레스 가든에서 1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허순(43)씨를 신임 홍천지회장으로 선출했다.

홍천지회장으로 선출된 허순씨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아리에서 1,000두 규모의 입문축산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고영민, 감사 박용배, 총무 진남주씨를 각각 선출했다. **양돈**